

남해화학, 말레이시아에 인산 공급!

쿠알라룸푸르 MPA와 장기 공급계약 ... 3년동안 매출 313억원 증가

남해화학(대표 장경택)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소재 MPA(대표 립리왕) 본사에서 인산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남해화학은 MPA의 연간 전체 소요량인 3만톤을 3년 동안 총 9만톤을 공급키로 했으며, 매 3년 단위로 공급계약을 자동 연장키로 함에 따라 인산 수출의 안정된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또 국제 비료시장의 시황에 따라 복합비료와 인산 수출을 적절히 조절해 수익 증대를 시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남해화학과 MPA는 2002년 8월13일 인산 장기공급계약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공급계약 체결을 통해 3년 동안 313억원의 매출 증대를 기대하게 됐다.

남해화학은 10월 2500톤의 첫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며, MPA는 인산을 사료 첨가제인 DCP 제조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8/05>